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신태인역 광장에
관광 전광판 설치

정읍시가 신태인역 광장에 전광판을 설치해 관광과 시정 정보를 알리는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관광자원과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신태인역 광장 내 전광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지역 주민과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7일 마침내 완공했다.

전광판은 높이 6미터의 기둥 위에 세워진 단면형 풀컬러 LED 형태로, 화면 크기는 가로 5.4미터, 세로 3미터에 달한다. 야간 시인성은 물론 영상과 문자 송출 기능까지 갖춰 정보 전달 효과를 높였다.

신태인역은 신태인읍과 인근 지역 주민(갑곡, 태인, 정읍, 이평 등) 1만여명이 생활권으로 활용하는 정읍의 주요 관문 중 하나다. 시는 이 전광판을 통해 정읍의 다양한 관광 명소와 축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전국 최고 품질
'건고추 장터' 개장

고창군이 전국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고창 건고추의 출하 시기에 맞춰 고추 재배 농가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위한 '고창 건고추 장터'를 2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 건고추 장터는 7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매주 주말과 고창 장날(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올해 건고추 장터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대시설과 고객 센터 등이 마련되어 건고추를 사고팔기에 더욱 편해졌다. 농가와 상인 그리고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해 품질 좋은 고추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개장 첫날인 23일 이른 아침에는 심덕섭 고창군수가 읍·면별 고추 작목반장 등이 장터를 찾아 고추 농가와 상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들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대선공약 국정과제 반영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 국정기획위 방문... 서해안철도 단계적 연결 등 6건

심덕섭 고창군수가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하여 박수현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경제2분과 이준석 분과장, 윤준병위원을 만나 고창군 주요 대선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단계적 연결 △노을대교(고창~부안) 조기 착공 및 연결도로 확장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연장 △고창 명사십리지구 복합해양테저관광 도시 지정 등 고창군의 제21대 대선공약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업의 국가적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서해안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현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 철도망의 확충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전북 교통·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북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균형발전 사업"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5국 3북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가적 필요성과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서해안철도망 구축과 관련하여, "현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 철도망의 확충은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전북 교통·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북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균형발전 사업"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5국 3북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북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균형발전 사업"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5국 3북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집행부 추경심의 때 민생지원금 재원마련 포함안돼 난항

부안군의회, 제363회 임시회 마무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3일 제5차 본회의를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여섯 차례에 걸쳐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와 조례안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는데, 군민과의 약속인 민생안전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실망감을 주고 있다.

특히 군정 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추

경안 심의 과정에서 부서별 심사와 계수 조정을 통해 일부 예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마지막날 김형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이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PVC 현수막이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의 원인이라며, PLA 등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과 관련 조례 제정,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비 보급종 공급 중단 및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과 김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 철도망의 확충 및 1·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돼, 군민의 뜻을 정부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폭염도 재해... 농업인 생명 지키는 행정 펼쳐야"

정읍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적극 행정에 나섰다.

최근 정읍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일수가 이어지며, 폭염특보가 반복적으로 발효되고 있다. 장시간 야외 노동이 불가피한 농업인들의 작업 여건이 악화되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작업시



간 조정 그늘막 설치, 쿨토시·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확

보와 생산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학수 시장은 지난 22일, 복숭아·고추·오이 재배 농가를 직접 찾아 폭염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폭염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재난"이라며 "행정이 앞장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핵심 현안사업 예산 반영 총력

권익현 부안군수,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기획재정부 방문

부안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정부 대응에 나섰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3일, 기재부를 방문해 부안군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며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권 군수는 사회예산심의관을 비롯해 기후환경·농림해양·국토교통·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사업별 정책적 연계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건의한 주요 사업은 탄소중립체합관 건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센터 조성,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 갯벌 해양생태 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격포 여객터미널 대체 건립 등

총 10개 핵심사업이다.

특히 백산성지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은 부안의 역사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상징적 사업이며 탄소중립체합관은 생태교육과 미래 기후산업을 연계한 환경 거점 모델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회 구조개혁 지원 등 재정적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힌 만큼 부안군이 건의한 사업들도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생태자원 기반의 신산업 육성, 지역 정체성 회복을 통한 균형발전 등 구조적 전환을 실현하는 실행사업으로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반찬 나눔 현장 찾아

새마을회관 방문 격려

이학수 정읍시장의 소외계층의 삶을 보듬기 위해 반찬 나눔 현장을 직접 찾아 따뜻한 응원을 전했다.

23일 이학수 시장은 장명동 '영양식 밑반찬 나눔행사' 새마을회관을 방문해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나눔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정읍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최금순)가 정읍시의 후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영양식 밑반찬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23개 읍면동 부녀회 회원들이 지역에서 난 신선한 재료로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경숙)와 시 부녀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참여해 김치와 불고기 등 정성 가득한 반찬을 만들었다. 완성된 반찬은 장명동 내 60가구에 부녀회원들이 직접 전달했고, 공유냉장고에도 비치해 필요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수 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하반기 첫 읍면동 회의... 민생·재해 점검

정읍시가 하반기 첫 읍면동 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과 지역 민생 현안을 점검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 주재로 읍면동 소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읍면동장과 19개 관계부서장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폭염과 갑작스런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시장은 무더위워터

냉방기 작동 상태 확인,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방문·안부 전화, 상습 침수지역과 붕괴위험지 점검 등 구체적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추진 상황, 공무원 사정 사기 예방 등 생활밀착형 민생 현안도 함께 다뤘다.

이학수 시장은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이자 시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이라며 "현장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